

삼성 TV 北美 점유율 40% 벽 넘었다

지난달 전자업계 최초 사파리아나스·소니 등 2~5위 합친 것보다 많아



삼성전자가 북미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40%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최대가 되면서 경쟁을 앞서는 북미 시장에서 한 달째 점유율 40%를 넘긴 것은 전자기업계 최초이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2009년에 처음으로 삼성 TV 시장에서 30%를 넘긴 삼성전자가 TV 점유율 40%를 넘긴 것은 2011년 12월 15일이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대가 되면서 경쟁을 앞서는 북미 시장에서 한 달째 점유율 40%를 넘긴 것은 전자기업계 최초이다.

삼성전자가 북미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40%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최대가 되면서 경쟁을 앞서는 북미 시장에서 한 달째 점유율 40%를 넘긴 것은 전자기업계 최초이다.

삼성전자가 북미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40%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최대가 되면서 경쟁을 앞서는 북미 시장에서 한 달째 점유율 40%를 넘긴 것은 전자기업계 최초이다.

삼성전자가 북미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40%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최대가 되면서 경쟁을 앞서는 북미 시장에서 한 달째 점유율 40%를 넘긴 것은 전자기업계 최초이다.

삼성전자가 북미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40%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최대가 되면서 경쟁을 앞서는 북미 시장에서 한 달째 점유율 40%를 넘긴 것은 전자기업계 최초이다.

삼성전자가 북미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40%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최대가 되면서 경쟁을 앞서는 북미 시장에서 한 달째 점유율 40%를 넘긴 것은 전자기업계 최초이다.

삼성전자가 북미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40%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최대가 되면서 경쟁을 앞서는 북미 시장에서 한 달째 점유율 40%를 넘긴 것은 전자기업계 최초이다.

삼성전자가 북미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40%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최대가 되면서 경쟁을 앞서는 북미 시장에서 한 달째 점유율 40%를 넘긴 것은 전자기업계 최초이다.

삼성전자가 북미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40%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최대가 되면서 경쟁을 앞서는 북미 시장에서 한 달째 점유율 40%를 넘긴 것은 전자기업계 최초이다.

삼성전자가 북미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40%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최대가 되면서 경쟁을 앞서는 북미 시장에서 한 달째 점유율 40%를 넘긴 것은 전자기업계 최초이다.

삼성전자가 북미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40%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최대가 되면서 경쟁을 앞서는 북미 시장에서 한 달째 점유율 40%를 넘긴 것은 전자기업계 최초이다.

최태원 "사회적기업, 아시아 가치로 발전"

'일일상과 화해의 시간' 상하이 포럼서 제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일일상과 화해의 시간' 포럼에서 사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회장은 "사회적기업은 아시아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기업은 아시아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기업은 아시아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일일상과 화해의 시간' 포럼에서 사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회장은 "사회적기업은 아시아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기업은 아시아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기업은 아시아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 세계 최대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규모인 반잠수식 시추선 2척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노르웨이 노르딕 올덴 해역에서 7억 달러 규모의 반잠수식 시추선 2척을 수주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노르딕 해역은 석유 매장량이 풍부해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지 중 하나다. 현대중공업은 노르딕 해역에서 7억 달러 규모의 반잠수식 시추선 2척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노르딕 해역에서 7억 달러 규모의 반잠수식 시추선 2척을 수주했다.



반잠수식 시추선은 물에 직접 닿는 선체 없이 바다 표면에 떠다니는 것이 특징이다. 조류와 파도에 의해 떠돌아다니는 노르딕 해역은 석유 매장량이 풍부해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지 중 하나다. 현대중공업은 노르딕 해역에서 7억 달러 규모의 반잠수식 시추선 2척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노르딕 해역에서 7억 달러 규모의 반잠수식 시추선 2척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노르딕 해역에서 7억 달러 규모의 반잠수식 시추선 2척을 수주했다.

화재 난 현대차 중공장 17일만에 정상 가동

지난 1월 17일 발생한 현대차 중공장 화재로 17일 만에 정상 가동됐다. 현대차는 23일 오전 10시에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17일 만에 정상 가동됐다.

현대차는 23일 오전 10시에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17일 만에 정상 가동됐다.

현대차는 23일 오전 10시에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17일 만에 정상 가동됐다.

현대차는 23일 오전 10시에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17일 만에 정상 가동됐다.

현대차는 23일 오전 10시에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17일 만에 정상 가동됐다.

현대차는 23일 오전 10시에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17일 만에 정상 가동됐다.

현대차는 23일 오전 10시에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17일 만에 정상 가동됐다.

현대차는 23일 오전 10시에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17일 만에 정상 가동됐다.

현대차는 23일 오전 10시에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17일 만에 정상 가동됐다.

"한국 대기업, 좁은 국토 극복한 최선의 선택"

문화체육관광부 CVA 부시장 겸 "세금·시정 문화는 라하" "한국은 아시아의 최대 시장이다. 한국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CVA 부시장 겸 "세금·시정 문화는 라하" "한국은 아시아의 최대 시장이다. 한국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CVA 부시장 겸 "세금·시정 문화는 라하" "한국은 아시아의 최대 시장이다. 한국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CVA 부시장 겸 "세금·시정 문화는 라하" "한국은 아시아의 최대 시장이다. 한국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CVA 부시장 겸 "세금·시정 문화는 라하" "한국은 아시아의 최대 시장이다. 한국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CVA 부시장 겸 "세금·시정 문화는 라하" "한국은 아시아의 최대 시장이다. 한국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다."

세상에 없는 것에 미친 사람들

베른

연구소 이야기

The Idea Factory

3만 3,000명의 특허 보유
13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미국 과학기술의 자존심

출판사: 창비 | 발행: 2011 | 288쪽 | 15,000원

이 책은 우수한 인재들이 뛰어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만든 베른연구소의 공화국 이야기이다. **발행처: 창비 | 발행: 2011 | 288쪽 | 15,000원**

“한국 대기업, 좁은 국토 극복한 최선의 선택”

글로벌 전략컨설팅 CVA
볼프강 레만처 부사장
“계급·서열문화는 바뀌야”

“한국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략컨설팅 업체 CVA의 볼프강 레만처 부사장(51·사진)은 28일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은 삼성이나 LG 같은 선도 대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사를 지난 물류 전문가이기도 하다. 1987년 설립된 CVA는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17개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전략 컨설팅 업체다. 서울 오피스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체 인력의 3분의 1을 배치하고 있다.

레만처 부사장은 “한국의 대기업 집단은 좁은 국토 등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

그는 독일 DAV대에서 국제무역 경영학을 전공했다. 유럽 2위 글로벌 물류 회사인 GeoPOST의

라고 말했다. 또 “이들의 오너 및 가족 경영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독특한 것이 아니다”며 “덕분에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되고 가치가 잘 보존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대기업 집단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장과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기업 집단에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기업은 ‘로열티’가 강하고 계급·서열적이어서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한 수출강국이 되려면 물류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욱진기자 venture@hankyung.com